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2일 수요일 음 4월 18일 (10월)

기상정보

맑음



중국 남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8°C, 낮 최고기온은 22-26°C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1.5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0% precipitation for all categori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30) and sunset (22:46).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맑음) and temperature (19/27°C, 20/27°C).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Rows show '관심' and '매우높음'.

월드뉴스

中 희토류, 미국에 통상보복 신호 주목

미국 수입의 90%가 중국산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통상보복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그 잠재적 파괴력이 주목된다.



희토류 시설 시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희토류는 전자제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광물로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상호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희토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비껴간 품목이다.

일단 중국에 대한 미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보면 제한조치가 가동될 때 미국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필요에 따라 중국산 제품 가운데 희토류에는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21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 수입은 산업계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

주목할 점은 미국도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생산량의 9%를 차지하는 3위 생산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도 자체 생산력은 있으나 생산량과 매장량에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작년에 희토류 12만t을 채굴해 세계 생산량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이 워낙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까닭에 중국산 대체 수입국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밥값

어머니는 생전에 입버릇처럼 사람은 밥값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알 수 없었지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그 깊은 뜻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인가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보릿고개를 넘던 궁핍한 시절에는 한 끼를 해결하기 힘들었지만, 오늘날에는 굶어지는 사람은 없다.

동물의 세계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오직 먹고살기 위해서 싸움하고 영역 다툼을 하는 것 같다. 인간 세계도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물론 인간에게 먹고 산다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유독 우리 사회에서 먹는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진정으로 올바른 삶은 오직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가 혹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생긴다. 식욕은 인간 욕망의 하나일 뿐이다. 식욕도 부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다르지 않다.

한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어야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언론매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비행과 비리에 연관되어 잡혀가는 사람들 모습이 등장한다. 그들은 그야말로 밥값을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가벼운 배낭일지라도 올바르게 정돈된 배낭으로 채워진 배낭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행로라 할 수 있다.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밥값을 하면서 인간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배낭은 누가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배낭에 사람들은 온갖 물건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배낭을 얼마나 가득 채우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모두 밥값을 하면서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야 한다.

<문학평론가·영남대학교수>

열린마당

기계 수확 뛰어난 '아람' 콩의 도전장



김석만 제주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콩은 우리가 먹는 곡식 중 유일하게 한 반도가 발상지인 작물로 우리 민족의 음식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제주 콩 재배품종의 변화를 보면, 1990년 이전까지는 '대두'를 주로 재배했다.

종이다. '아람'은 기계 수확이 뛰어나 수확 노력비가 50% 절감된다. 또한, 수량은 10% 이상 많고 줄기가 쓰러지거나 꼬투리가 터지는 현상도 적은 특성이 있다.

2019년 을지태극연습에 임하는 각오



박종태 제주은행 안전관리실장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과 6·25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로 전락했다. 그러나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으로 오늘날 세계 12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됐다.

치부하고 형식적인 연습에 임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각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는 연습의 의미를 명심하고 미흡한 분야를 분석해 보완하고 이를 자체 중무실사계획에 반영, 다음해에는 더욱 더 내실있는 연습이 되도록 선순환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 나물콩 재배품종이 새로운 품종 '아람'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풍산'에 대한 '아람'의 도전장이다.

제주은행도 제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역금융기관으로 을지태극연습과 같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올해 연습에서도 은행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전산망 사이버 테러, 현금 대량 인출로 인한 뱅크런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품종이 기존품종을 대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기존품종보다 뛰어난 우수성을 농업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군수물자 생산업체나 생활필수품 생산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전시 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해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건물 피폭에 따른 대피훈련과 전시 영업적 무장강도 현금 탈취에 대응하는 훈련을 경찰 및 경비업체 등과 협조해 입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귀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국민연습을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WINIX air purifier advertisement featuring product imag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Jeju branch.